



방어진항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방어진

근대역사투어



방어진항의 역사

근대이전

- 고려 현종(1912년) 방어주
- 조선 효종 방어진목장 설치
- 조선 숙종 왕실진상 전복 어장

일제 강점기 초기

- 1897년 일본 어민 왕래 시작
- 1905년 일본 어민 최초 이주
- 1910년 방어진항방파제 축조
- 1912년 일본회 조직
- 1913년 방어진어업조합 설립
- 1918년 울산자동차조합 설립

일제 강점기 후기

- 1923년 울산전기 설립
- 1924년 방어진금융조합 설립
- 1924년 방어진시장 개설
- 1928년 방어진항방파제 확장
- 1929년 방어진철공조선 설립
- 1937년 방어진읍 승격

해방이후

- 1962년 방어진 출장소 설치
- 1971년 국가어항 지정
- 1972년 현대중공업 설립

문의

동구청 관광과 Tel.052)209-3361~3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http://www.donggu.ulsan.kr/kor/>



울산광역시 동구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방어진항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방어진 근대역사투어

방어진에서 만나는 근대 역사의 발자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투어 코스로 예술의 섬 슬도와 근대역사건물 등을 만나면서 울산의 심장 방어진의 속살을 체험 할 수 있다.

조선말기의 방어진은 방어진목장이 있던 30여 호에 불과한 빈농빈어 貧農貧魚의 한적한 농어촌이었으나 1897년부터 고등어와 삼치 등의 어업을 위해 일본인들이 내왕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고등어 어업의 일대 근거지가 되었다.

1905년 오카야마현 히나세 日生의 어민 아리요시 가메키치 有吉龜吉 가문을 시작으로 일본인의 방어진 이주는 해마다 증가하여 1912년에는 일본회가 조직되었고 일본인 학교 및 관공서 등이 세워질 정도로 번성하였다.

주 어종은 정어리, 고등어, 방어 및 고래 등으로 가장 번성할 때에는 수백 척의 배들이 항구를 매웠으며, 어획량이 전국 총 생산량의 10%에 이를 정도로 동해안 최대의 항구였다.

당시 방어진에는 철공조선소, 통조림공장, 사이다 공장 등의 공장 시설과 함께 영화관, 여관, 주점 및 유곽 등의 유흥시설은 물론 학교, 4개의 목욕탕, 여객터미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당시 개도 만엔 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당시 방어진의 풍족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어리 등의 어획량 감소와 중일전쟁으로 인한 어선징발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여 한때 전국 최대 어획고를 자랑하며 부항 富港으로 자자하던 옛 명성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다.

최근 방어진항 고도화사업과 함께 항구와 다문화,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는 글로벌 건축문화거리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방어진근대역사 투어 코스(2.5km -2시간소요)



지붕없는 예술관 슬도

오랜 세월 조개가 뿜는 120만개가 넘는 자그마한 구멍으로 삼전체가 뒤덮여 일명 공보섬으로 불리는 슬도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거문고 연주처럼 들린다고 해서 불려 졌다. 최근에는 MBC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 '메이퀸'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으며 자연 그대로의 무대를 배경으로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예술의 섬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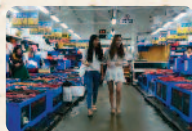
소리체험관

한반도 동남쪽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천년의 시간이 머물러 문화와 산업을 꽃 피워온 울산 동구에는 특별한 소리가 있다. 울산 동구의 특별한 문화콘텐츠인 '울산 동구 소리9경'을 테마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리체험관은 소리9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소리체험관 2층 '소리카페'에서는 슬도 주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성골벽화마을

성골마을은 60~70년대 해안가 마을의 특성을 간직한 마을로 마을 안길을 벽화로 예쁘게 단장하였다. 벽화를 감상한 뒤 마을 위로 올라서면 대왕암공원이 보인다. 주차장에서 대왕암공원 까지 해안 둘레길이 조성돼 산책하면서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방어진항(활어직판장, 어시장, 활어센터&횃집목)

울산에서 생선회를 맛보려면 방어진항을 찾으면 된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어 가지미, 오징어, 숭어 등 다양한 어종의 산지인 방어진항은 방어진활어센터와 방어진어촌계직매장 등 대규모 활어센터 2곳과 80여개소의 업소가 성업중이다. 또 방어진항 어시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자연햇살로 말린 다양한 건어물을 만날 수 있다.



적산가옥거리

울산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며 울산 최초 목욕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방어진은 일제시대 변화한 모습을 간직 하고 있다. 지금은 일본식 가옥 10여채와 목욕탕의 흔적이 남아있다.



천년소나무(방어진노거수)

1,000여 년 된 굴솔나무로 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그 모습이 웅과 비슷하고 웅과 관련된 전설이 있어, 웅나무로 도 불린다. 일제시대 전쟁터로 나가던 젊은이들이 나무아래 우물물을 마시고 출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방어진철공조선소(터)

전해의 어장인 방어진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수리를 위해서 1929년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조선, 선박수리, 선박용 발전기 제작 등이다. 1972년 전한만에 현대중공업이 설립되어 동구가 조선메카도시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데 기반을 다졌다.



방어진항방파제(축조기념비)

방파제축조기념비는 가로 세로 각각 1m, 높이 2m 크기의 화강암으로 일제강점기인 1923~28년 일본인 수산업자들이 한국인들을 동원해 축조한 항구시설과 방파제 준공을 기념해 제작한 것이다. 방파제 축조 과정에서 당시 한국인 공사인부 (한국인) 48명이 희생되기도 했다.